

화요글발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지난 7월, 서천군과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업무협약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서천 문헌서원을 방문했다.

서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목백일홍이 가로수처럼 늘어서 빨간 꽃을 피우고 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고려 말 가정 이곡과 그의 아들 목은 이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이 서원은 참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곡은 원나라 문인을 통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여말선초

(麗末鮮初) 사회가 불교에서 유교 문치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조선의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곡이 쓴 글을 엮은 '가정집'에는 죽부인전, 차마설 등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오늘은 차마설의 일부를 인용해 '빌려 쓰기'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 타는데, 여위고 둔해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해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채찍질하며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태로워 떨어지는 근

빌려 쓴다는 것

심을 면치 못하였다.(중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곡이 말하려던 것은 잘못된 소유 관념을 비판하면서 권력이든, 권한이든, 말이나 장비든 간에 진정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은 빌려 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좋은 말을 빌리면 빨리 달릴 수는 있으나 위태롭고, 아원 말을 빌리면 느리게 가나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점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에는 고가 장비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장비인 3000만원 이상의 주(主)장비가 239대에 달하며 장비활용 기업 수도 연간 1668개사(2023년 말 기준)에 이른다.

국내 유일의 디스플레이 공정 실증을 할 수 있는 최신장비는 물론이고 소부장 테스트베드, 오는 11월 이후 서천에 구축할 첨

단 해양바이오 장비와 R&D 연구시설 및 입주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이나 장비 활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은 입주시설과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성장하고 코스닥까지 등록 가능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특히 이제 처음으로 느리게 달리는 말과 같은 창업 3~7년 미만 기업들은 충남테크노파크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우리 삶과 비즈니스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이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장비와 시설 또한 소유 대상이 아니라 각 기업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씨앗이다.

이 씨앗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자원은 기업의 것이 되고,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